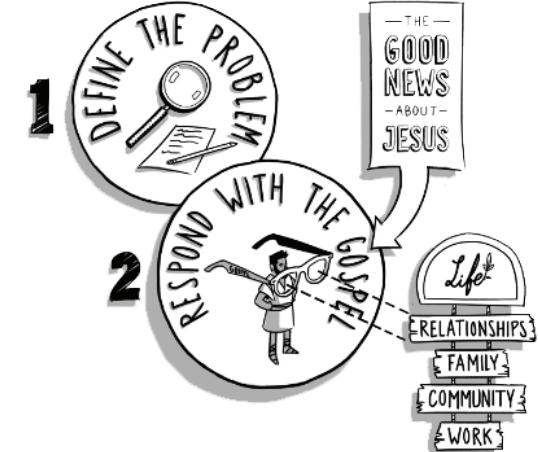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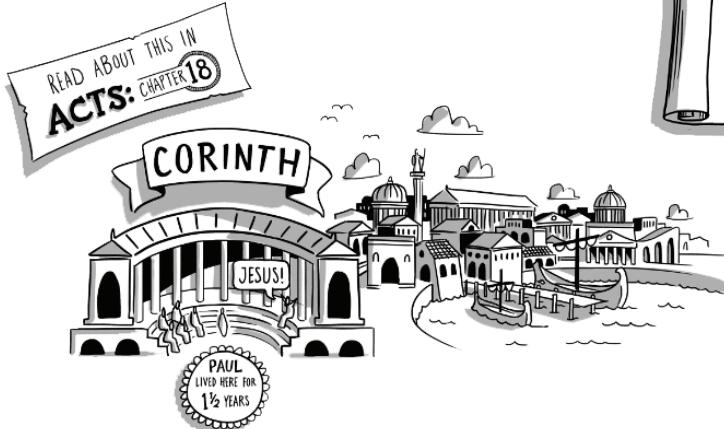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 1. 고린도전서의 배경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의 그리스도) 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첫번째 편지로 바울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의 주요 항구도시였으며, 그리스의 신들과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요한 경제적 중심지였기에, 바울은 선교사로서 전략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1년 반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 후 바울은 다른 도시에 교회를 세우려고 옮겨갔는데, 고린도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보고를 받고,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 2. 고린도전서의 구성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다섯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각 부분마다 하나씩 바울은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한 소논문집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묶는 핵심 개념들이 있습니다. 각 섹션마다 먼저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복음서 즉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의 이야기를 빌어 각각의 문제에 대해 반응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믿는 것을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모든 삶의 영역을 복음의 렌즈를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 1 - 4 DIVISIONS

5 - 7 SEX

8 - 10 FOOD

11 - 14 THE GATHERING

15

THE RESURRECTION

16

FINAL GREETING



### 3. 고린도교회 안의 분열

자 이제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봅시다. 1~4장에서의 문제는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 다른 교사들 즉, 아볼로라 하는 이와 베드로가, 이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교사를 선택해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그룹을 만들고, 다른 리더나 교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냉소적이고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장난쳐요?" 바울은 교회가 인기 경연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나 교사들은 그저 예수님의 종일뿐입니다. 설사 우리가 한 리더를 다른 리더들보다 더 선호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편을 가를 일이 아니고, 더욱이 서로를 나쁘게 말할 일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복음은 그분이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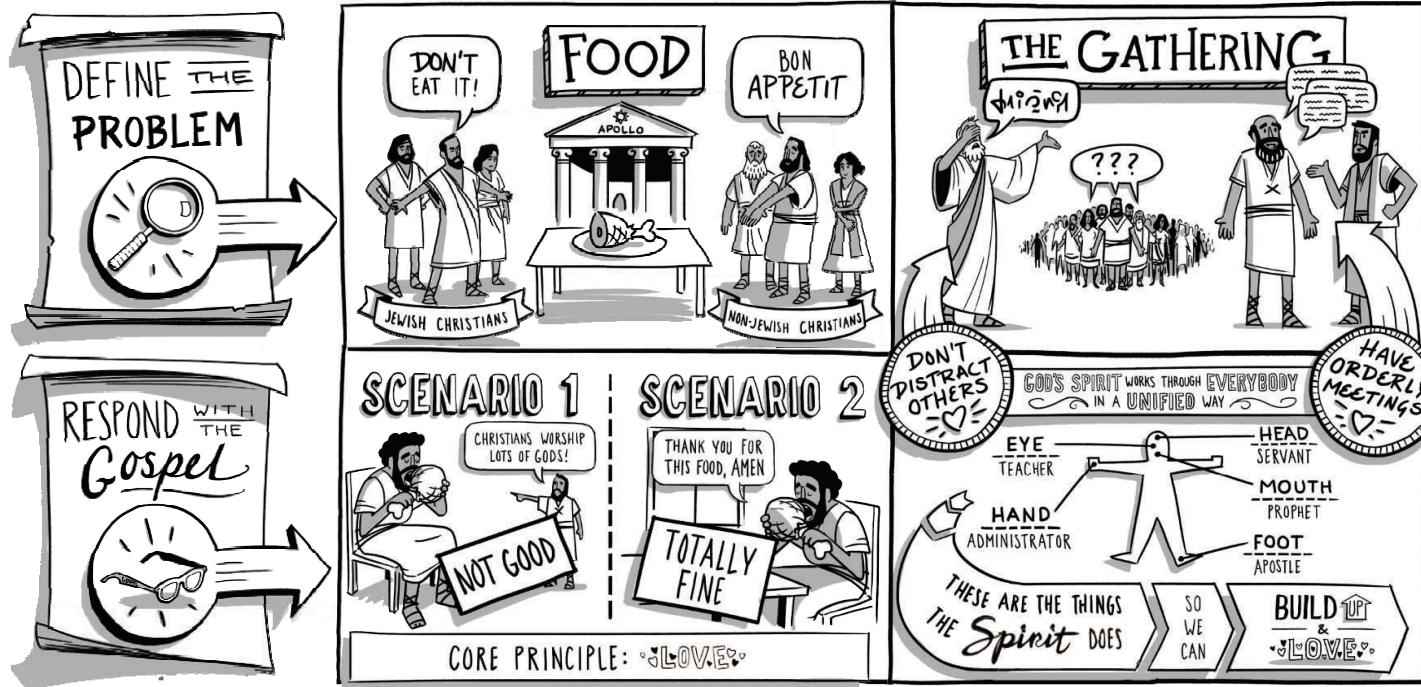
### 4. 고린도교회의 성적인 문제

5~7장에서 바울은 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룹니다. 교회 안에 난잡하게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모와 관계를 한 남자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지역의 신전에서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창기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행위들이 모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까, 그렇지?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죄에는 여러분들의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러분들의 행동들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들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즉, 우리의 몸이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예수님에 의해 구속되고 있다면, 우리가 몸으로 무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적으로 진실함에 있어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5. 시장에 나온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문제

8장부터 10장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이란 단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같은 선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분열시킨 이슈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위해 바친 희생 제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로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적으로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먼저 만약 당신이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것 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다른 신들도 섬기는구나." 바울은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하며, 그들을 잘못 된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또 다른 말로 고기 먹는 일을 정당화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동물을 포함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신전의 우상들은 나무와 돌들을 조각한

것들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주위에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리고 배가 고프다면, 드십시오!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을 따르는 자유로운 새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괜찮고, 어떤 상황에선 먹으면 안되는 것 일까요?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이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6. 예배로 모일 때의 문제

11장부터 14장에서는 바울은 주간 예배 모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강렬한 영적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모임 중에 그들은 알 수 없는 언어들로 크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가르침을 나눴고, 다른 사람들도 또 나누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끼어들었습니다. 예배는 정말 무질서 해졌고, 복음을 들으러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매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11-14장)에서 바울은 먼저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적절한지를 그들이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해야 하는 곳이며, 그래서 모든 일이 통일성 있게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멋지게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각각의 다른 부위들과 지체들은 각각의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매우 많은 일들을 열거하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의 핵심 구절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모일 때의 최고 가치는 복음 – 즉 하나님의 사랑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사랑이 이 부분의 핵심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 집회에 모인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서로의 유익을 섬기며 추구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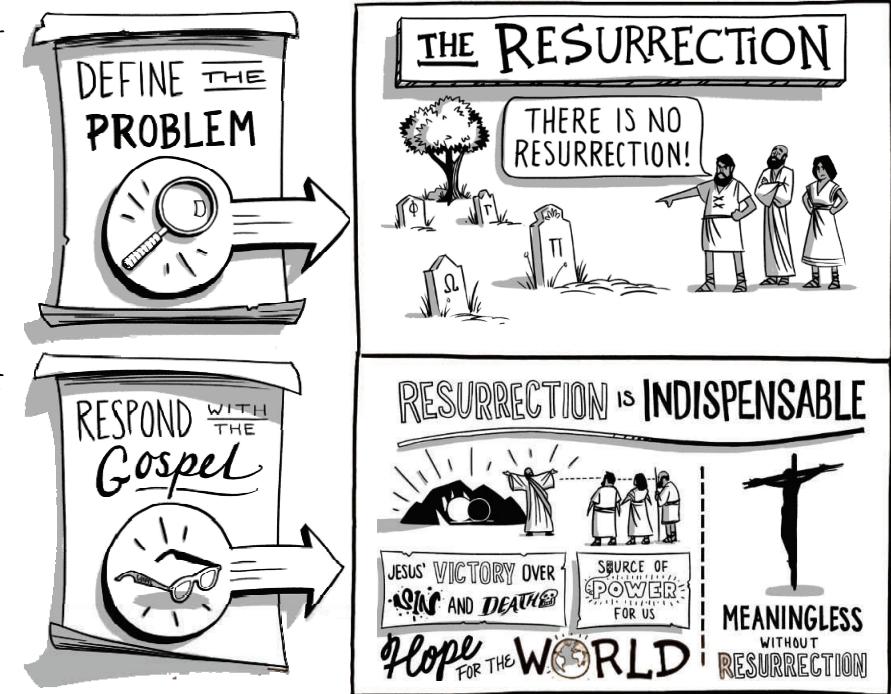
그래서 바울은 이 핵심을 고린도인들의 문제에 적용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집회의 목적이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 또는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기도를 통해 강렬한 영적 체험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놀라게 한다면,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집회는 질서 있게 모두가 배우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 7. 부활에 관해

바울이 다룬 마지막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터무니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강조하여 말합니다.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공개 처형 당하신 이후 육체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 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은 의미없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와 이기심 속에 잊어버린 사람이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을 것입니다.



## 8. 부활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갖는 의미

바울은 부활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악을 이기신 승리인지 상세하게 보여주며, 어떻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자 현재의 우리의 힘이고, 어떻게 그것이 세상을 위한 미래의 소망의 약속인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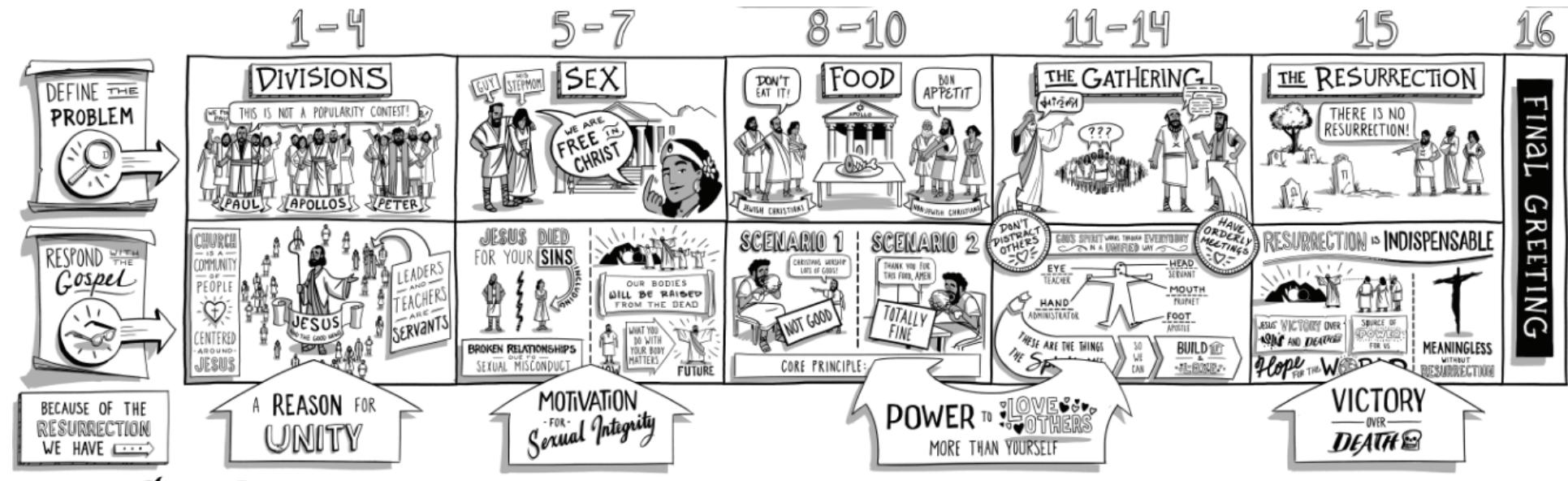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도 역시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진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자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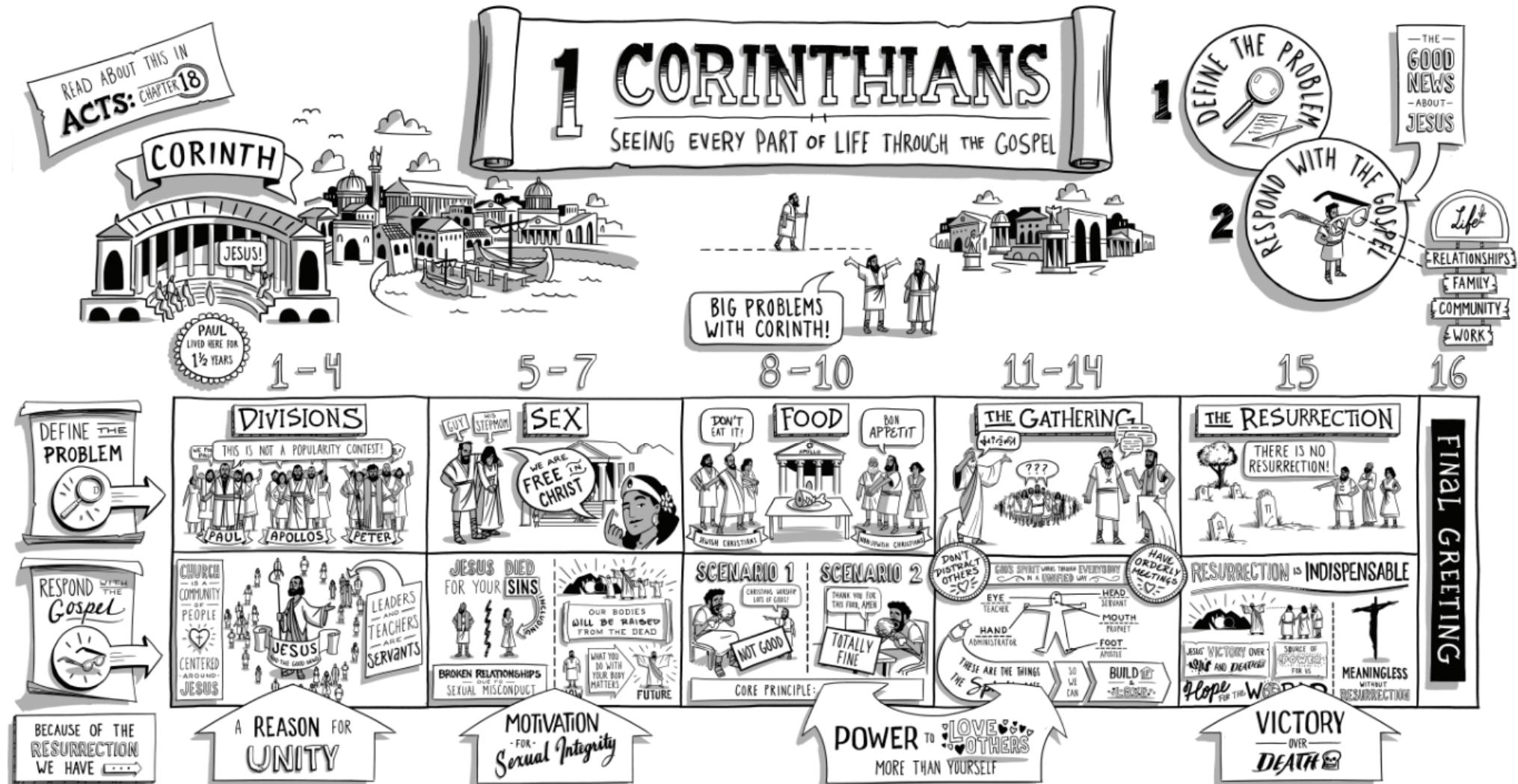
그래서 바울은 결론 짖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복음은 단지 도덕적인 조언이나 개인의 영성을 위한

레시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공표 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전체 내용이며, 삶의 모든 부분을 복음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THE GOSPEL:** AN ANNOUNCEMENT ABOUT JESUS THAT OPENS UP A NEW REALITY



**THE GOSPEL:** AN ANNOUNCEMENT ABOUT JESUS THAT OPENS UP A NEW REALITY

created by the Bible Project